

# 인문주의 정신의 현대적 의미\*

—Matthew Arnold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윤 지 관

## 1. 서 : 왜 Arnold가 문제되는가

현대에 이르러 Matthew Arnold는 거의 시효를 잃은 듯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시인으로서의 Arnold의 지위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가 스스로의 분야로 선택한 비평에서조차 Arnold의 위광은 20세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흐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Victoria 시대 최대의 비평가로 평가되는 Arnold의 비평적 비중이 금세기 들어와 이처럼 현격하게 약화된 이유를 한마디로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상이 대체로 금세기 초부터 전개된 신비평 이후 비평이 그 과학성 혹은 객관성을 강조하면서부터 가속화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평의 체계화 내지 이론화 경향은 이후에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등으로 이어지면서, Arnold의 소위 '시금석'(touchstone)류의 비체계적 비평법을 더욱더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 말았다. 현대비평의 이러한 한 조류를 우리는 형식주의적·구조주의적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사실 언어의 자율성, 문학 테스트의 독자성, 과학적·분석적 비평태도 등을 앞세우는 이 현대 비평의 흐름이, 문학을 '삶의 비평'(criticism of life)으로 파악하는 Arnold의 사회적·문화적 접근법에 거부감을 보여왔던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닐 듯하다.<sup>1)</sup>

그렇다면 문학의 자율성보다 그 사회성을 중시하는 비평 쪽에서는 Arnold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들에게서도 Arnold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신비평가들의 불평과는 달리 역설적이게도 Arnold는 당대인들에게 문학(혹은 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sup>2)</sup>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금세기 비평의 또하나의 주류인 마르크스주의 비평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 바 있다. 이들은 Arnold가 도덕적·내면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진정한 실천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며, 특히 그

\* 이 논문은 1986년 11월 29일 있었던 대학원 Colloquium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논의되었던 몇가지 문제들, 예컨대, Arnold의 고전주의관의 변화와 그 의미, 이론과 실천의 통합성 문제, 노동층에 대한 반응의 모호성,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인식의 변별점 등에 대한 토론의 성과는 이 글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더 진척된 연구가 다른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 이 점은 최근 *Critical Inquiry*지(83년 3월)의 Matthew Arnold 특집에서 Eugene Goodheart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Arnold의 사회적 접근법이 동시에 사회·정치적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비판받았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Eugene Goodheart, "Arnold at the Present Time," *Critical Inquiry* 9 (March 1983), pp. 451-452.
- 2) 당대 비평가 중 F.D. Maurice와 Fitzjames Stephen이 대표적. 다음 참조. Carl Dawson and John Pfordresher, eds., *Matthew Arnold: The Critical Heritage, Prose Writing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 10-17.

의 사회관의 증산층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보수주의적 기질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다.<sup>3)</sup> 물론 그의 견해 모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의 모호성 혹은 순진성은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뿐 아니라 문학의 사회적 관련성에 주목하는 현대의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커다란 약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형편이다.<sup>4)</sup>

결국 Arnold는 형식·구조주의적 비평과 사회·정치적 비평이라는 현대의 두 비평주류에서 배척당하게 되고, 따라서 점차 현대비평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만 셈이다. 그러나 비록 Arnold가 관심의 초점이 되지는 못한다 해도, 그의 비평세계는 어떤 현대의 비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Arnold의 비평이 비체계적이고 효용론적이라고는 하지만 문학 고유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서 사라진 적은 없으며, 또 그가 인간의 내면성·도덕성을 강조하고 비과학적 사회관을 지녔다 해도 그의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고 진지하다는 사실은 거의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라는 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된다. 범박하게 말해 형식·구조주의적 접근은 문학의 과학화를 통해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문학의 이념화를 통해 각각 과학화·산업화·계급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rnold의 비평이 현대비평에서 무대점을 받게 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문학의 과학화와 문학의 이념화를 동시에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rnold에게 현대와 대결하는 다른 뚜렷한 대응책이 있었던 것인가? 이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에 Arnold의 진정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되며, 필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인문주의 정신이 현대사회 속에서 겪는 곤경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사실 현대는 가히 인문주의 정신의 위기라고 할 만한 시대이다.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대립, 고도과학·산업사회의 도래 등은 르네상스 이래로 지속되던 휴머니즘의 전통에 닥친 하나의 ‘대지진’이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과연 문학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Adorno의 고통어린 질문이 인문주의 정신의 위기감을 잘 전해 준다. Adorno의 이 질문은 현대적 상황이 문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동시에 비평으로 하여금 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인문주의 정신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만든다. Arnold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Arnold의 현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Arnold에 대한 검토가 인문주의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그가 바로 현대적 문제의 진원지에서 비평작업을 했고 스스로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Arnold의 비평세계에 대한 검토는 인문주의 정신의 효용성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5)</sup>

3) Terry Eagleton이 대표적. 다음 참조.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pp. 22-26.

4) 예컨대 Lionel Trilling. 그는 Arnold의 모호성에 깔린 반동성을 지적한다. Lionel Trilling, *Matthew Arnold*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4), pp. 277-279.

5) 이 점에서 Arnold를 cultural criticism의 중요한 원천으로 보는 Raymond Williams와 Lesley Johnson의 다음 저작은 주목된다.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58); Lesley Johnson, *The Cultural Cr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그러나 방대한 Arnold의 비평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편의상 Arnold의 비평에서 핵심이 되는 세 용어, 즉 비평, 교양, 교육 개념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이 세 개념은 Arnold의 비평을 축약하고 있고, 대체로 단계적 발전을 보인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2. 현대정신과 비평의 기능

Arnold의 비평경력에는 1853년 판 자신의 시선집에 붙인 “Preface”에서 시작된다. 이 “Preface”는 Arnold의 비평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글이며, 이를 계기로 그는 점차 시를 포기하고 비평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Preface” 이후 10년간 계속된 Arnold의 초기비평은 첫 평론집 *Essays in Criticism*(1865)에 묶여져 있으며, 그 성과는 이 평론집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그의 대표적 평문인 “The Function of Criticism at the Present Time”(1864)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글에는 Arnold의 현대관, 비평관, 문학관이 종합적으로 피력되어 있는데, “Preface” 이후 그가 견지한 고전주의적 관점과 현대에 있어서의 비평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가 그 핵심을 이룬다. 다음 귀절은 이 평문의 결미부분으로 그의 문학관을 축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Still, in full measure, the sense of creative activity belongs to only to genuine creation; in literature we must never forget that. But what true man of letters ever can forget it? It is no such common matter for a gifted nature to come into possession of a current of the true and living ideas, and to produce amidst the inspiration of them, that we are likely to underrate it. The epochs of Aeschylus and Shakespeare make us feel their pre-eminence. In a epoch like those is, no doubt, the true life of literature; there is the promised land, towards which criticism can only beckon. That promised land it will not be ours to enter, and we shall die in the wilderness: but to have desired to enter it, to have saluted it from afar, is already, perhaps, the best distinction among contemporaries; it will certainly be the best title to esteem with posterity.<sup>6)</sup>

이 귀절에 따르면, Arnold는 창작과 비평을 구분하고 일단 창작의 창조활동을 높이 보면서 그 창조활동이 꽃핀 시기를 그리이스 시대와 엘리자베스 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현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손짓하며 황야에서 죽어가는 것이 비평의 기능이자 운명이라고 본다. Arnold의 이러한 견해는 얼핏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견해이다. 필자는 Arnold의 이러한 견해가 가지는 의미와 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제기되는 의문은, 비평의 임무가 이처럼 빈약한 것이라면 왜 Arnold는 시 대신 비평을 선택했는가라는 점이다. 이 의문에 대한 Arnold의 대답은 대체로 시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된다. Arnold에 따르면, 현대는 우선 위대한 문학을 산출하기에 부적당한 시기이며, 이런 시기에는 창조적 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환경(혹은 요소, 재료, 사상의 질서)의 창조를 위한 지적 노력이 바로 비평의 몫이

6) Matthew Arnold,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III, ed., R.H. Sup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77), p. 285. 다음부터 이 전집의 명칭은 *Works*로 통일하고, 인용은 권수와 페이지만 기록한다.

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 하에 Arnold는 현대를 한마디로 ‘비시적인’(unpoetical) 시대라고 규정짓는다. Arnold가 말하는 현대는 복잡하고 방대한 현실, 압도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느낌을 전제하고 있다.<sup>7)</sup> 이것은 물론 산업화와 대중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Victoria기의 현실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현대와 비평의 필요성에 대한 Arnold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창조 작업보다도 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당대 문학의 큰 성과라 할 낭만주의 시들에 대한 Arnold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Arnold는 전 세대의 낭만주의 시인들을 그다지 높은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천재를 가졌다고는해도 이 비시적인 시대에 그들의 천재가 적절하게 작용할 지적·비평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낭만주의 문학은 조속한 문학이라는 것이다.<sup>8)</sup>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같은 Arnold의 낭만주의의 폄하가 그의 “Preface”에서부터 이미 예기되었던 경향이라는 사실이다. “Preface”에서 그는 자신의 시 “Empedocles on Etna”를 제 외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것이 현대의 병적 징후를 해결책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 구절이 그 현대적 징후의 정체를 잘 드러낸다.

What those who are familiar only with the great monuments of early Greek genius to be its exclusive characteristics, have disappeared; the calm, the cheerfulness, the disinterested objectivity have disappeared: the dialogue of the mind with itself has commenced; modern problems have presented themselves; we hear already the doubts, we witness the discouragement, of Hamlet and of Faust.<sup>9)</sup>

여기서 우리는 Arnold가 말하는 현대적 징후가 인간의 자의식의 드러남과 관련되며, 낭만주의 시가 조속하다는 그의 지적도 이같은 심적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가 고전시대의 문학의 특성인 ‘침착함, 명량성, 사심없는 객관성’ 등의 사라짐을 아쉬워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그는 현대사회의 역사적 추세인 산업화와 민주화가 인간에게서 고상함, 탁월함 등의 고전적 특성을 박탈했다고 보고, 일종의 실황성을 느끼는 듯하다. 사실 고전주의적 음영과 인간적 고귀함에 대한 향수는 르네상스 이래 휴머니즘의 주된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Arnold의 시 포기과 비평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비인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문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즉 그가 비록 인문주의 정신의 요청으로 시를 포기했다해도, 과연 당대의 모든 시가 현대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예컨대 그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낭만주의시가 그의 말대로 ‘무용한 날개짓’에 불과한가?<sup>10)</sup>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쉽사리 그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

7) *Works*, I, pp.20-21. 및 III, p.109 참조.

8) *Works*, III, pp.121-122. 및 p.262 K, pp.233-237 참조.

9) *Works*, I, p.1.

10) Arnold가 Shelley를 평가하면서 한 다음 표현에서. “Shelley, beautiful and ineffectual angel, beating in the void his luminous wings in vain.” *Works*, K, p.237.

려 낭만시의 역동성을 입증함으로써 그를 반박할 수도 있다. 또한 Arnold 자신도 후기에 와서 낭만주의 시를 재평가했으며, 그 자신 사적으로는 낭만주의 시인들(특히 Wordsworth)의 애호가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관정의 절대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낭만시에 대한 실제비평 상의 판단이 어떠한 Arnold의 현대관, 문학관에 따르면 당대시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결코 현대에 합당한 문학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Arnold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사라진 고전적 이상, 균형·조화·품위를 가진 고전세계의 문학에 비추어 당대의 문학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rnold는 이런 평가의 방식을 그의 후기 평론 "The Study of Poetry" (1878)에서 '진정한 평가'(real estimate)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Arnold가 말하는 훌륭한 문학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경지를 말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Arnold가 "Function of Criticism"의 마지막 귀결에서 그 경지를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결국 황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부분도 바로 적절한 문학의 불가능함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 이계 되면, Arnold가 처음에 비평의 몫으로 분류한 창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작업은, 훌륭한 문학의 탄생이 이미 불가능한 현대에 있어, 도구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대에는 창조적 작품의 생산이 아닌 비평의 역할만이 남아 있는 셈이며, Hartman의 불평과는 달리 사실 현대의 소위 창조적 비평은 Arnold의 비평관에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게 된다.<sup>11)</sup> 다시 말해 Arnold는 창작을 비평보다 높이 설정한 최초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창작의 경지를 이상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비평의 기능을 더욱 절대화하는 결과에 다다른 셈이다.

이제 우리는 Arnold의 비평정의를 정면으로 검토하여 앞에서 논의한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Arnold에 의하면 비평이란 세상에서 알려지고 생각된 최상의 것을 배우고 퍼뜨리려는 사심없는 노력(a disinterested endeavour to learn and propagate the best that is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이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See things as they really are) 태도이다.<sup>12)</sup> 우선 첫번째 정의에서 쫓점이 되는 문제는 '사심없음'과 '최상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이다. 여기서 '최상의 것'이란 대체로 앞에서 지적한 고전적 이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별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 '사심없음'이란 말은 모든 개인적·파당적 이해관계를 떠난 판단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평가태도가 말하자면 '진정한'(real) 평가이며, 바로 비평이 취하는 정도(正道)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비평이 과연 'real'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계층적·파당적 개인적 의식과 분리된 '사심없는' 판단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한 그것이 퍼뜨리려하는 '최상의 것'이 실재하는 현실이라기보다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비평개념은 오히려 'ideal'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Arnold의 또하나의 비평정의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기된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really)라는 표현은 사실주의적 혹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고전주의적 혹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1) 앞에서 언급한 *Critical Inquiry* Arnold 특집호에서 George Levine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 George Levine, "The Artist in the Wilderness," 앞책, pp. 469-482.

12) *Works*, III, p. 283 및 V, p. 91.

Arnold에 있어서 현실(reality)은 모든 현상적·구체적 표면과는 상관없는 사물의 본체 내지 본질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Arnold는 누차에 걸쳐 비평이란 실천(practice)의 세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Ruskin이나 Cobbett가 정치적 실체에 손을 댄으로써 비평 고유의 '무구한 언어'(innocent language)를 상실했다고 비판한다.<sup>13)</sup>

이상에서 검토한 Arnold의 비평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평이란 이상의 추구이며 또한 최상의 비평 그 자체도 이상적인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결국 비평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고, George Levine의 표현처럼 Arnold의 비평작업은 하나의 거대한 자전적 소설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sup>14)</sup>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Arnold에 있어서 사물의 본체를 보려는 노력은 단편화·복잡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래적 상태 다시 말해 총체성(totality)의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평의 관념성에 실천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총체성에의 꿈이며,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어 제시된 것이 교양(culture)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3. 교양론과 총체성의 요청

Arnold의 비평개념이 교양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후자가 전자를 뚜렷이 대체하게 된 것은 바로 *Culture and Anarchy*(1869)가 발표되면서부터였다. 원래 *Culture and Anarchy*는 "Function of Criticism"이 발표되고나서 그에게 쏟아진 비판들에 대응해서 씌여진 반박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교양개념을 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rnold이 비평개념에 대해 당대 비평가들이 퍼부은 공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두가지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그를 엘리트주의자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초월주의자로 보는 것이다.<sup>15)</sup> 전자는 Arnold의 비평관에서 감지되는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며, 후자는 비평의 비실제성·비행동성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 맞서서 Arnold가 입증해야 할 사실은 그가 말하는 교양에 있어서 개인의 완성은 곧 인류전체의 완성과 불가분하다는 점, 그리고 교양은 그 사심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Arnold가 *Culture and Anarchy*를 단행본으로 내면서 붙힌 서문의 다음 귀절이 이같은 그의 의도를 잘 나타내 준다.

The whole scope of the essay is to recommend culture as the great help out of our present difficulties; culture being a pursuit of our total perfection by means of getting to know, on all the matters which most concern us, the best that has been thought and said in the world; and through this knowledge, turning a stream of fresh and free thought upon our stock notions and habits, which we now follow staunchly but mechanically, vainly imagining that there is a virtue in following them staunchly which makes up for the mischief of following them mechanically.....

13) *Works*, III, p. 275.

14) *Critical Inquiry* (March 1983), p. 476.

15) 전자는 F.D. Maurice, 후자는 Fitzjames Stephen이 대변한다. Carl Dawson and John Pfordresher, eds., 앞 책, pp. 13-14 참조.

And the culture we recommend is, above all, an inward operation.<sup>16)</sup>

이 귀절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교양 개념은 거의 비평 개념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현재 우리의 곤경'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사회적 실천성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교양의 적극적 측면은 '우리의 진부한 생각과 습관'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양이란 어디까지나 '내적 작용'이라고 뜻을 박고 있기도 하다.<sup>17)</sup>

그렇다면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은, Arnold의 교양 개념, 다시 말해 총체성의 개념이 내적인 총체성을 칭하는 것인지 사회적 총체성을 포괄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여기서 다시 Arnold의 발언을 참조로 하자. Arnold는 교양의 특징의 하나로 지적 호기심을 들고 이어 교양의 사회적 속성을 지적하고나서 이렇게 결론 짓는다.

Culture is then properly described not as having its origin in curiosity, but as having its origin in the love of perfection; it is a study of perfection. It moves by the force, not merely or primarily of the scientific passion for pure knowledge, but also of the moral and social passion for doing good.<sup>18)</sup>

이 귀절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Arnold의 교양이 내적 총체성뿐 아니라, 전 사회를 포괄하는 의미의 총체성을 목표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이같은 입장은 교양을 '일반적 완성'(general perfection)이라고 규정하는 데서도 드러나며, 또 교양인은 '진정한 평등의 사도'(true apostles of equality)라는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그의 지향점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완성에 이르는 지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Arnold의 교양론은 엘리트주의적이라는 화살을 훌륭히 막은 셈이 된다.

두번째로, 초월주의적이라는 공격에 대한 Arnold의 대응은 이보다 다소 복잡하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식에 의거하여 이 시대에는 대안없는 행동보다 사심없는 사색이 더 실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종의 인류문명의 발전체계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문명의 두 축은 Hellenism과 Hebraism이며, 이 둘은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즉 Hellenism과 Hebraism은 마치 변증법의 두 대립항처럼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호관련적·보족적이며, 또한 인간본성의 두 경향이자 역사적 흐름의 두 줄기라는 것이다. 그런대 현대에 이르러 시대의 주류는 Hellenism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도 행동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양있는 비행동'(cultured inaction)이나 사심없는 관찰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Arnold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의 영국에서는 지나치게 신념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사색이 더욱 소중하다고 본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예컨대 런던 빈민가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뚜렷한 실득력을 갖는다.

16) *Works*, V, pp. 233-234.

17) 이 마지막 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유의되어야 할 듯. 즉, 원래 *Culture and Anarchy*는 시간을 두고 발표된 논쟁문의 성격을 띤 논문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강조점의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을 경시할 수 없다. 이 서문은 단행본 출판 당시에 쓴 글이므로 대체로 뒷부분의 논지에 가깝다. 뒷부분은 Lesley Johnson도 적절히 지적하시피 보수적 태도가 더 두드러진다. Lesley Johnson, 앞 책, pp. 28-29.

18) *Works*, V, p. 91.

Arnold는 이 아이들이 서로 불한척이라도 나누어 마시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직접적 행동의 무용성을 통박하고서, 그런 방식보다는 왜 이러한 사태가 생겼으며 어떻게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같은 발언의 설득력을 인정하는 한, 사실 그에게 겨누어진 초월주의자라는 비난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Arnold의 교양론에 대한 논의가 마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시에 앞에서 제기된 두 가지 비판의 유효성이 전적으로 사라졌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우선 첫번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비록 Arnold의 '일반적 완성'이 교양의 목표임을 인정하더라도 완성의 이념 자체가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 결국 교양인은 소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 완성 또한 영원한 꿈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비판이 가능하다. 비록 교양있는 비행동이 우회적·간접적으로 실천성을 띠고 있다할지라도 결국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것이 사고와 행동, 이론과 실천, 삶과 문학을 통합하는 진정한 총체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결국 관념적·엘리트적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Arnold의 총체성은 개인만의 인격적 완성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모순을 도외시한 개인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Arnold의 교양론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Arnold는 일반적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회적 총체성의 실현을 궁극지향점으로 삼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양있는 비행동류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면서, 교양의 정신적·내적 성질을 자주 강조하곤 했다. 이것이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결핍을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체성을 지향하는 Arnold의 교양개념 전체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당대의 한 비평가의 말의 빌자면, 폭풍우 앞에 내미는 향수병에 지나지 않는다<sup>20)</sup>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록 Arnold의 교양 개념이 자체내에서 이론 상의 혼란을 보이고는 있다해도 그것이 현대의 사회적 제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양개념의 이 곤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단순히 Arnold 개인의 이론적 결함이기보다, 인문주의 정신 자체의 한계이자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Arnold의 이같은 이론적 흔들림은 바로 그의 고전적·인문주의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듯하다. 즉 개인의 자유와 고결성을 견지하려는 전래의 인문주의 전통이 Arnold의 시기에 이르러 사회적 제모순의 심각한 드러남 앞에서 흔들리면서 Arnold 특유의 교양개념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교양 개념은 인문주의 전통의 강력한 계승이자, 새로운 사태에 대한 하나의 실험적 반응인 셈이다.

교양 개념의 이같은 양면적 속성은 Arnold의 총체성 개념을 어느정도 관념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가 말하는 총체성은 그 구체적 내용의 결핍으로 인해 관념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문제는 Arnold가 당대의 대표적 장르라 할 소설문학에 대해 완전한 침

19) *Works*, V, p. 217.

20) 당대 평론가 Henry Sidgwick의 표현. Carl Dawson and John Pfordresher, eds., 앞 책, p. 224.



특을 지켰다는 일견 기이한 사실과 부분적으로 관련된다. 이것은 초기 Lukács가 Arnold와 유사하게 그리스 문학을 이상화하면서 그 총체성의 현대적 양상을 소설(특히 교양소설)에서 찾았던 사실<sup>21)</sup>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Arnold가 당대 소설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시든 소설이든 당대의 작품에 대해서 실제비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Arnold의 고전주의적 기질 탓이라고 생각된다. Arnold는 일찌기 소위 장엄한 문체 (grand style)의 필요성과 문학적 소재에 있어서 고상한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다음의 귀절이 그 대표적 보기이다.

If asked to afford this by means of subjects drawn from the age itself, they ask what special fitness the present age has for supplying them: are told that it is an era of progress, an age commissioned to carry out the great idea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amelioration. They reply that with all this they can do nothing; that the elements they need for the exercise of their art are great actions, calculated powerfully and delightfully to affect what is permanent in the human soul; that so far as the present age can supply such actions, they will gladly make use of them; but that an age wanting in moral grandeur can with difficulty supply such, and an age of spiritual discomfort with difficulty be powerfully and delightfully affected by them.<sup>22)</sup>

이러한 고전주의적 취향이 소설의 리얼리즘적 경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Arnold의 당대 소설 무시는 낭만주의 시 폄하와 마찬가지로 그의 본질적인 고전주의적 성향을 드러내준다. 이런 점에서 Arnold의 총체성 개념의 이상주의적 색채는 비평 개념의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Arnold의 '교양' 역시 그의 '비평'과 흡사하게 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도정이 된다. 그러나 이론상의 이러한 관념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교양이 영원한 꿈으로 남아 있지만은 않다. 그것은 교양이 Arnold가 중시하는 교육이라는 실천적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교육의 문제와 인문학의 의미

Arnold가 자의 평생을 교육업무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전력을 쏟았다는 사실은 현대에 들어와 종종 간과되거나 때로는 심지어 조소받기까지 한다.<sup>23)</sup> 그러나 Arnold의 비평 및 교양 개념이 이론에 치우친다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의 교육적 실천의 강렬함이다.<sup>24)</sup> 그에게 있어 교육은 바로 완성의 이상을 현실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분야는 그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관계 내지 간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인 동시에 그만큼 그 간격에 무심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 문제

21) Georg Lukács, *The Theory of Novel* (Cambridge: The M.I.T. Press, 1971)이 이 문제를 다룬다.

22) *Works*, I, pp. 13-14.

23) Harold Bloom이 대표적. Bloom은 Arnold를 '장학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비판다. *Critical Inquiry* (March 1983) 중 George Levine이 글에서 재인용. 앞책, p. 471.

24) 이 점에서 주로 Arnold를 변호한 사람은 Lionel Trilling이다. Lionel Trilling, 앞 책, pp. 280-287.

는 Arnold의 총체성 개념 및 인문주의 정신의 본경을 보다 뚜렷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먼저 지적해야 할 사실은 교양의 개념 속에 이미 교육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Culture looks beyond machinery, culture hates hatred; culture has one great passion, the passion for sweetness and light. It has one even yet greater! — the passion for making them prevail. It is not satisfied till we *all* come to a perfect man; It knows that the sweetness and light of the few must be imperfect until the raw and unkindled masses of humanity are touched with sweetness and light.<sup>25)</sup> (Italic은 Arnold자신의 것)

이처럼 교양은 원래 모든 사람을 완성시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결국 다수에 대한 교육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누가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교육은 계몽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중을 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두가지 문제는 교육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Arnold는 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즉, 인문교육을 주장했지만),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심을 하는 듯하다.

교육담당층은 Arnold의 논리상 당연히 교양인들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교양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Arnold는 당시의 사회가 귀족계급, 증산층, 노동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Arnold가 보기에 이층 어느 계급도 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귀족계급은 물질적이 된 야만인(babarians)이고 증산층은 속악해진 속물(Philistines)이며, 노동층은 난폭해진 군중(Populace)이라는 것이다.<sup>26)</sup> 결국 현실의 어느 누구에게도 교육을 담당시킬 수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한 Arnold는 일상적 자아(ordinary self)와 구별되는 최상의 자아(best self)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최상의 자아가 구성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도출해낸다. 이 국가는 모든 계층적·파당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개념이며, 교육을 담당할 적절한 기구이다.<sup>27)</sup> 이같은 국가가 실행하는 교육은 특정계급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각자의 최상의 자아를 계발하고 교양의 완성을 도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rnold의 이 국가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이 국가개념의 관념성이다. 즉 현실적으로 이같은 이념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실제교육이 이 국가에 맡겨질 수 있을까? Raymond Williams도 지적하다시피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이념적 국가가 실제의 국가와 동일시되는 경우이다.<sup>28)</sup> 사실 Arnold는 무질서에 맞서는 실재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공립학교 건립을 역설하기도 했다.

25) *Works*, V, p. 112.

26) *Works*, V, pp. 137-162, (*Culture and Anarchy* 제 3장, "Barbarians, Philistines, Populace") 참조.

27) *Works*, V, pp. 115-136 (*Culture and Anarchy* 제 2장, "Doing as One Likes") 참조.

28) Raymond Williams, 앞 책, pp. 131-133.

Arnold의 국가론의 이같은 혼란을 평가하기 위해 Lionel Trilling과 Lesley Johnson의 견해를 언급해두는 편이 편리할 듯하다. 우선 Trilling은 Arnold의 실패가 국가론을 수립하려는 모든 자유주의적 시도가 겪는 전형적 양상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Arnold는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결합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내면적 이성의 목소리에 호소한다는 플라톤적 국가관을 택했다는 것이다.<sup>29)</sup> 그러나 Johnson은 이같은 견해를 반박하면서, 사실 Arnold식의 주장은 당대의 지배층이라 할 중산층의 논리를 인정하려는 당시 사회의 경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Arnold는 중산층이 결국 교양계층으로 성장하여 노동층의 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을 순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sup>30)</sup> Johnson의 주장의 초점은 Arnold가 자신의 중산층적 계급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맞추어진다. 즉 Arnold는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층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본다. 사실 노동층이 야기한 '무질서'에 대한 Arnold의 지나친 반응은 Williams도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영국의 노동층이 Arnold가 경계할 만큼의 자코뱅적 속성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고 반문한다.<sup>31)</sup> 이처럼 노동층에 대한 중산층 특유의 경계심은 Arnold로 하여금 기존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게 하고 이같은 태도는 그의 국가론을 모순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Arnold의 입장이 당대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그가 중산층적 한계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노동층의 출현에 대한 그의 태도는 비교적 객관성과 정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Culture and Anarchy*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토운을 확인할 수 있다. Arnold는 중산층의 속물근성을 맹렬히 비난한 후 노동층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And where is this great force of Philistinism now? It is thrust into the second rank, it is become a power of yesterday, it has lost the future. A new power has suddenly appeared, a power which it is impossible yet to judge fully, but which is certainly a wholly different force from middle-class liberalism; different in its cardinal points of belief, different in its tendencies in every sphere..... I am not now praising this new force, or saying that its own ideals are better; all I say is, that they are wholly different.<sup>32)</sup>

이 인용문에서 분명해졌다시피 Arnold의 노동층에 대한 인식은 비록 사회구조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고는 해도 일단은 진실한 판단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된다. 노동층이 미래의 주인이라는 소위 '비평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 현재의 중산층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Arnold의 옹호도 결국 시대적·상대적인 의미를 띠게 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Arnold의 목적이 노동층을 순화·통제함으로써 전적으로 중산층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있다는 Terry Eagleton의 재단적 비난보다는,<sup>33)</sup> 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Arnold의 문화비평의 역사적

29) Lionel Trilling, 앞 책, pp. 277-291.

30) Lesley Johnson, 앞 책, pp. 19-27.

31) Raymond Williams, 앞 책, pp. 133-134.

32) *Works*, V, p. 107.

33) Terry Eagleton, 앞 책, pp. 22-30.

중요성을 높이 치는 Raymond Williams의 관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34)</sup> 실제로 Arnold가 당대의 중산층이 아니라 교양을 갖춘 계층(현재로서는 중산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해야겠지만)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Arnold의 교육론은 중산층의 기존 이익의 확립을 노린다고보다, 전체 인간의 교양화·인간화를 지향하는 Arnold의 인문주의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결국 교양 개념과 유사하게 Arnold의 이념적 국가관의 문제점들 또한 노동층이 현저히 부상하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인문주의 정신이 겪게 마련인 의혹과 딜레마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교육 담당층의 문제에 비해 교육 내용의 문제에서는 Arnold의 대응이 보다 명쾌하다. 후기의 중요 논문인 "Literature and Science" (1882)에서 Arnold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대비시키고,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은 과학이 진보할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But now, says Professor Huxley, conceptions of the universe fatal to the notions held by our forefathers have been forced upon us by physical science. Grant to him that they are thus fatal, that the new conceptions must and will soon become current everywhere, and that every one will finally perceive them to be fatal to the beliefs of our forefathers. The need of humane letters, as they are truly called, because they serve the paramount desire in men that good should be for ever present to them, the need of humane letters, to establish a relation between the new conceptions, and our instinct for beauty, our instinct for conduct, is only more visible.<sup>35)</sup>

Arnold는 여기서 인문학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미에의 본능, 행위예의 본능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인간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바로 인문학의 통합적 기능을 말해 준다. 인문학 교육은 결국 인간의 총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양의 완성을 그 목표로 삼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문학의 이념에 있어서도 교양 개념에서 제기된 문제가 다시 개입한다. 즉, 교양이 지향하는 인격의 완성이 사실 일반적 완성 없이는 도달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때, 인문학의 영역 또한 사회과학의 분야까지 확장되지 않고는 올바른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Arnold의 인문학 개념에는 주로 자연과학과의 대비만 강조되고 사회과학적 인식에 대한 특별한 자각은 눈에 띄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그가 교양론 및 교육론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여를 보였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는 Arnold의 인문학 개념의 한계뿐 아니라 그 가능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 즉 Arnold가 말하는 인문학은 순문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지식과는 구별되는 인간행위와 본성에 관련된 모든 사상을 지칭하는 만큼 그 가운데서 사회과학적 인식의 싹을 볼 수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5. 결 : 인문주의 정신의 전망

Arnold의 비평활동은 185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사이에 그의

34) Raymond Williams, 앞 책, pp.122-136.

35) *Works*, X, p. 66.

입장에는 몇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사용한 용어로 말하자면, 시를 포기하고 비평을 선택한 초기에는 대체로 Hellenism에 기울었고, 교양개념 형성기인 중기에는 Hellenism과 Hebraism의 통합을 지향했다. 그러나 1870년 이후에는 오히려 Hebraism 쪽을 강조하게 된다. 후기의 주요 평론인 "The Study of Poetry"가 시의 종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rnold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종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 비판에는 Arnold의 비평활동기가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Victoria 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영국사회는 급속한 질적·양적 변화를 겪었다. 다시 말해, 산업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선명히 부각되고 노동층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던 소용돌이의 시기였다. Arnold가 Hellenism을 강조한 것이 영국 중산층의 지나친 청교주의적 경향에 대한 경고였다면, 후기에 와서 그가 Hebraism을 중시한 것은 시대가 이미 압도적으로 과학 쪽으로 기울어 종교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변함없이 찾을 수 있는 특성은, 그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그 총체성을 유지시키려는 인문주의적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검토한 비평·교양·교육 개념들이 총체성을 향한 그의 영원한 손짓을 잘 입증해 준다. 물론 그의 개념들이 하나의 이상을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 관념성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 대응이 현대적 현상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속에 총체성예의 꿈이 살아있는 만큼이나 강력한 사회적 관심의 표명이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인문주의 정신은 그 개인적 완성의 꿈에 칩거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 위기에 이르러 현대 인문주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Arnold의 개념들은 바로 인문주의 정신이 사회과학적 정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Arnold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Arnold가 마주쳤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 남아 있고, 따라서 그의 딜레마와 모색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 〈Bibliography〉

#### 1. Primary Source

- *The Complete Prose Works of Matthew Arnold*, ed., R.H. Super.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60~77.

#### 2. Secondary Sources

- Altick, Richard D.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73.
- Buckley, J.H. *The Victorian Temper*. 1951; r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 Dawson, Carl and Pfordresher, John, eds. *Matthew Arnold: The Critical Heritage*,

*Prose Writing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Johnson, Lesley. *The Cultural Cr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 Luká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1920; rpt. Cambridge: The M.I.T. Press, 1971.
- Trilling, Lionel. *Matthew Arnold*.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4.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958;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9.
- *Critical Inquiry* 9. (March 1983).